

“어제의 한화를 경계하자” 김승연, 끝없는 혁신 주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어제의 한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11일 “한화는 100년 그 이상의 미래를 바라본다”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화만의 혁신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화의 모태는 1952년 김 회장 부친인 현암(玄岩) 김중희 회장이 세운 한국화약이다. 방위산업, 석유화학, 금융,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올 상반기 기준 93개 계열사, 664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세계 7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70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지평을 확대해 온 역사였다”며 “창업 때부터 사업보국(事業報國)을 바탕으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 가려지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한화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킨 임직원의 헌신이 지금의 한화를 만들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0년 한화의 청사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기업과 함께 도전



창립 70주년... 임직원에 강조

“100년 한화 위한 혁신의 길
과거 성공방정식 허물어야”

5년간 37조 투자... 2만명 고용 에너지·항공우주 등 신사업 육성

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종합방산 기업 및 그린에너지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그 이상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일상에 가장 밀접한 금융·서비스부터 꿈과 미래를 앞당겨줄 화학, 에너지, 항공우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화다운 혁신을 지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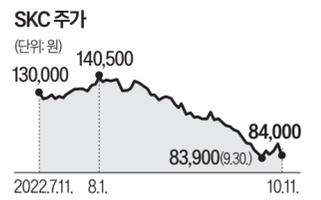
한화그룹은 사업 재편과 투자를 통해 시너지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방위산업 재편을 통해 종합방산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 지주사 격인 ㈜한화는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 인수를 통해 소재, 장비, 인프라 분야로 전문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5월 기존 사업들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해 향후 5년간 37조6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5년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조원의 국내 투자는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3개 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김 회장은 “100년 한화를 향한 혁신의 길에 인재와 윤리, 준법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보상과 과감한 채용·발탁을 통해 함께 도전하고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화는 지난 8일 열린 서울 세계꽃축제에 이어 오는 12월엔 고품격 클래식 공연인 한화클래식을 진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롯데, 동박 사업 진출에... 떨고있는 1위 SKC

롯데케미칼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품었다.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을 선언한 후 첫 대형 기업 인수합병(M&A)이다.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함에 따라 동박 시장 주도권을 놓고 세계 1위 업체 SKC 넥셀리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11일 일진머티리얼즈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고 밝혔다.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3.3%와 허 사장 등 2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아이엠지테크놀로지 신주인수권을 2조7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인수 주체는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신설한 롯데배터리 머티리얼즈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로 단순해 글로벌 동박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는 13% 점유율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넥셀리스다. 중국 의 왓슨(19%)과 대만의 창춘(18%)이

2.7조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공격적 설비 증설 나설 듯 경쟁 우려에 SKC 주가 급락

각각 글로벌 2, 3위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M&A를 검토해 왔다”며 “올 들어 금리 인상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로 있었지만 롯데의 강한 사업 의지로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자금 부족 등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일진머티리얼즈를 롯데케미칼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점유율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2차전지

글로벌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SK넥셀리스에 70%를 의존하고 있는 동박의 조달처를 일진머티리얼즈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일진머티리얼즈 주가는 전일 대비 5.19% 오른 5만68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케미칼 주가는 0.33%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가 1.83%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SK넥셀리스 모회사인 SKC 주가는 9.29% 폭락했다. SKC는 회사의 모태이자 캐시카우인 필름사업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고 동박사업을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과 수익률이 함께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



3년만에 돌아온 서울패션위크 K패션을 대표하는 33명의 국내 디자이너가 참석하는 '2023 SS(봄-여름) 서울패션위크'가 1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이날 부대 행사로 열린 '하이서울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줄리앤칼라 브랜드 옷을 선보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

핫한 KT '듀얼 번호' 가입자 23만명 돌파

KT는 지난달 상용화된 eSIM을 활용해 자사 '듀얼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만5000명에 달한다고 11일 발표했다. eSIM을 이용하면 1개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KT는 지난달 eSIM 도입과 함께 월 8800원에 추가 번호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듀얼 번호' 요금제를 내놨다. eSIM이 없어도 추가 번호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문자, 통화를 쓸 수 있는 기존 '투 넘버 서비스'는 '듀얼 번호 라이트'로 개편했다. 두 요금제의 총가입자는 23만 명을 넘어섰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무선 서비스 신규 개통 고객 가운데 듀얼 상품 가입자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eSIM을 쓸 수 있는 기기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4·플립4와 애플 아이폰XS 이후에 출시된 아이폰 제품뿐이다.

KT는 eSIM 상용화에 맞춰 듀얼 번호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자극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K실트론, 질화갈륨 웨이퍼 시장 진출

SK실트론이 무선통신·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질화갈륨 웨이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SK실트론은 지난 6일 경북 구미 본사에서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인 영국 IQE와 전략적 협력 합작(SCA)을 맺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양사는 맞춤형 질화갈륨 웨이퍼의 개발과 아시아 시장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IQE는 첨단 화합물 기반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솔루션을 세계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질화갈륨 웨이퍼는 실리콘 웨이퍼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 질화갈륨 박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기존 웨이퍼보다 전력 변환 효율이 높다. 급속 충전 등 고출력과 내열성을 요구하는 전기차와 스마트기기, 고속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황정수 기자

숫자·눈금 없이 색으로만 시간 표현

▶ 으뜸종기

미라이크 학습용 시각화 타이머 시간 흐름 직관적으로 나타내

“시계의 대표적 특징인 숫자와 눈금, 시곗바늘을 없앴습니다. 오직 색으로 시간 흐름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학습용 시각화 타이머 '미나타이머(사진)'를 제조하는 미라이크의 정희승 대표는 제품에 대해 10일 이같이 설명했다. 미나타이머는 색상으로 시간 흐름을 표현하는 제품이다. 두께 4cm, 지름 10cm의 원형 탁상시계와 비슷

하게 생겼지만 시곗바늘이 지나가는 자리에 색을 채우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0.5분(30초)에서 1440분(24시간)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게 하면서 학습·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정 대표는 “미나타이머의 역할은 흘러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조 생산업체를 섭외했다. 2019년 5월 처음 제품을 출시한 뒤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1억2100만원에 불과했던 때



출은 이듬해 2억9100만원, 작년 10억 8300만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미나타이머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4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은 2대 8 정도다. 일본 아마존에서는 타이머 부문 24주 연속 1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진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A, B 임대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제22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A, B 임대사업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A, B 임대사업
나.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13 내
다. 임대면적: (A) 34,635.5㎡, (B) 19,297.68㎡ / 부지면적 (A) 36,936.0㎡, (B) 23,085.0㎡
라. 임대기간: 최초 계약기간 10년 + 1회에 한해 10년 연장 가능
마. 사업방식: 기내식시설 A, B는 공항공사 소유이며, 사업자는 사업자의 비용·책임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전체 시설물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시행
- 주요 임대조건**
가. 입찰참가자격: 모집안내서 전문 참고
나. 임대조건: 상세사항은 모집안내서 전문 참고
- (원상회복) 사용기간 만료, 계약의 종료까지 종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원상회복(계소전환에 해당)
- (임대료) 입찰 공고의 최저수용가능액 이상 입찰금액(모집안내서 참고)
- (입찰보증금) 1차년도 추정 연간임대료의 5%(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납부)
- (임대보증금) 1차년도 연간 임대료의 6개월분(VAT포함)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
* 모집안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airport.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평점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나. 평가장목: 상세사항은 모집안내서 전문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작성방법: 사업개요,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모집안내서 참고
나. 제출기한: 2022년 11월 1일(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시설개발팀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시 본인의 신분증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모집안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airport.kr)에서 확인 가능
- 기타사항**
가. 질의사항: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18:00까지 서면 질의서 제출
나. 기 타: 기타 문의는 항공시설개발팀 공고 담당자 문 의 ☎(032-741-6759)
- 인천국제공항공사: https://www.airport.kr/co/ks/index.do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ebid.airport.kr

본 공고문은 모집안내서의 요약본으로, 반드시 모집안내서 본문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Incheon Airport

한국벤처투자상근감사 공개모집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외 상근감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벤처투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에 대한 지원 경험 보유인 자
 -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책임감, 정직성, 윤리성 등 무탈한 책임감과 의식을 갖춘 자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 벤처투자(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인 자(신기술사업창업자 등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벤처투자(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인 자(신기술사업창업자 등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력직) 제1항 각호 및 한국벤처투자 장관 제25조(임원의 겸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 자격을 갖춘 자
- 지원안내**
 - 가.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한국벤처투자 출제지시 참고
 - 최종합격후 면접, 경력검토서, 자격증 사본은 지원서에 첨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확인서
 -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다. 제출기간: 2022. 10. 12 - 10. 28. 17:00(오전부터 연함)
 - 라. 접수 및 문의처: 한국벤처투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02-2956-2191, 298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45길 16(재동) 한국벤처투자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우편번호 06088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
 - 서류심사는 채용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합격비)
- 기타사항**
 - 채용된 서류는 변경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2022년 10월 12일
한국벤처투자 임원추천위원회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 제공모 안내

인천항을 종교자동차 수출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고 종교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교자동차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 제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1. 사업대상지 현황**
 - 사업명: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42-1 일원
 - 대상지: 총 38,155㎡ (1만제 - 2만제)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1단계(204,145㎡ / 2만제(19,011㎡))
- 2. 주요 사업내용**
 - 인천항은 우리나라 종교자동차 수출 거점 항만으로 종교자동차 수출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일원내 종교자동차 수출 거점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및 운영사업자 모집 제공모 조성·운영에 지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3. 주요 사업조건**
 - 종교사업자 선정 인내시의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소기업 포함) 또는 신규 설립 예정인 총 인원을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및 운영사업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
 - 인천항 항만부지 일대내 신청자격 또는 일대내 해당년도 공시지가(경매면적 1㎡=5,100원(대외환)~4~5,244원(내환) 및 임대기간 최대 50년간)은 30년, 10년 단위 최종 2회 연장 가능
 - 기타 세부 조건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psa.or.kr)내 공고문 2번서 참고
- 4.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인내서의 사업신청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 (이후 절차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첨부된 안내서 참조)
 - 공사 홈페이지(www.ipsa.or.kr)▶입찰정보 바로가기▶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
 - 제출일시: 2022. 11.09(화) 18:00 - 17:00
 - 제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도동로 35 인천항만공사 (6층 IBK타워 3F)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허용하지 않습니다)
-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직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류, 회계,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제출 서류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안정된 내용 및 절차는 공고문 안내서 참조)
-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제출 필요서류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인천항만공사 콜센터(02-800-6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